



도하 아시안게임 이모저모



14일 새벽 열린 여자축구 결승에서 승리한 북한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여자축구 환상적 플레이”

대회 관계자들 ‘北 우승’ 극찬 투지·체력·기술 삼박자 갖춰

북한 여자축구가 맹위를 떨쳤다. 북한 여자축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일본을 4-2로 꺾고 금메달 시상대에 올라선 14일 카타르 스포츠클럽.

2006 도하아시안게임 여자축구 결승 북한-일본전을 지켜본 경기 진행 요원들과 외신 취재진은 한결같이 혀를 내둘렀다. 하프타임에 미디어센터에서 만난 호주 출신 요원은 “이 경기가 진짜 여자축구 맛이다. 내가 축구를 제법 많이 봤는데 가장

환상적인 플레이”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카메라를 든 외신 기자들도 “웬만한 남자축구 경기보다 훨씬 낫다. 박진감이 넘친다”며 맞장구를 쳤다.

북한 여자축구가 세진 세너는 소문만 들은 이들에게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 경기력이었다. 북한은 비록 전·후반과 연장 120분 혈투에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고 승부차기까지 들어갔지만 내용상으로는 압승에 가까

웠다. 특유의 강한 체력과 스피드를 앞세운 북한은 120분 내내 한시도 쉬지 않고 상대를 몰아붙이며 맹렬한 공격 축구를 구사했다.

북한은 여자축구 세계랭킹 7위로 독일, 미국, 브라질 등 유럽·미주팀들에 비해 아직 전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날 경기만 놓고 보면 어떤 팀도 북한을 쉽게 이기기는 힘들어 보인다. 북한 여자축구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01년과 2003년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를 연속 우승했고, 아시안게임도 2002년 부산대회에 이어 2연패를 했다. 무엇보다 올해 9월 20세 이하(U-20) 세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를 제패했다는 게 가장 자랑할 대목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공식 대회를 우승한 것은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 북한이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故 김형철 선수 영결식 엄수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경기 도중 낙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故) 김형철 선수의 영결식이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풍납2동 서울아산병원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 장(卿)으로 엄수됐다.

승마 후배 및 제자 10여명이 영구(靈柩)를 들고 영결식장에 입장하면서 시작된 영결식은 묵념, 고인의 약력소개, 조사 낭독, 유족 대표인사,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30여분간 진행됐다.

김정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 박용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등 체육계 관계자와 승마협회 관계자, 유

족 등 200여명이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김정길 KOC 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자상하게 후배들을 이끌고 지도하던 활기차고 열정적인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지만 고인께서 보여준 스포츠를 향한 사랑과 헌신적 노력은 한국 스포츠의 끊임없는 도약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영결식을 마친 김형철 선수의 유해는 노제를 거쳐 성남장제장에서 화장된 뒤 이날 오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치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UAE 공주는 무서워”...공수도 ‘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여자 공수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놀랍게도 주인공은 아시안게임에 2회 연속 나선 ‘공주님’이다. UAE의 셰िका 마이타 모하메드 라시드 알 막툼(26) 공주는 14일 카타르스포츠클럽 다목적홀에서 열린 2006 도하아시안게임 공수도 쿠미테(대련 부문) 여자 +60kg급 결승에서 소피아 카스폴라토바(우즈베키스탄)에게 0-5로 패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UAE 공수도 사상 여자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건 마이타가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서 UAE 전체 참가 선수단 중 여성 은메달리스트도 현재까지 마이타가 유일하다. 이번 대회 개최지에서 UAE 선수단의 기수를 맡기도 했던 공수도 대표팀 주장 마이타는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부통령 겸 총리의 딸이다. 그의 아버지 모하메드 총리는 UAE를 구성하고 있는 7개의 에미리트 중 하나인 두바이의 통치자이자 UAE의 행정수반으로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다. 모하메드 총리는 이날 직접 경기장을 찾아 딸의 경기를 준결승까지 지켜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IA 새 용병투수 에서튼

美 메이저리그 출신

프로야구 KIA가 새 외국인 투수로 우완 세스 에서튼(Seth Etherton·30·사진)을 영입한다. KIA 관계자는 14일 “신입 용병 후보로 오른 7명 중 변화구 구사 능력이 뛰어난 에서튼을 영입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급 에이스’ 세스 그레이 싱어(31)를 일본에 내주고 용병 영입에 고민해온 KIA는 이로써 현대 출신 래리 서튼(36)에 이어 외국인 선수 영입을 모두 마무리 지게 됐다.

특히 이번 에서튼의 영입은 이번 달 초 현대에서 KIA로 이적한 서튼의 적극적인 추천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명문대 USC(남가주대) 출신인 에서튼은 98년 에너하임 애인절스의 1라운드(18번째) 지명으로 프로무대에 데뷔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00년 에너하임에서 빅리그에 첫 선을 보인 에서튼은 올해 5승1패 평균자책점 5.52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후 신시내티와 오클랜드

를 거쳤고, 올초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스프링캠프에 초청선수로 참가했지만 방출됐다. 캔자스시티로 팀으로 옮겼다. 올 시즌 빅리그 성적은 7.2이닝동안 1승 1패, 방어율 9.39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에서튼은 직구 최고구속은 140km대 중반 정도로 다소 떨어지지만, 안정된 컨트롤을 바탕으로 한 커브와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 구사 능력이 일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청소년스포츠클럽교류대회 목포서 17일부터 열전 4일

광주이고 출신 야구스타들 내일 오전 광주에 총집합

제1회 전국청소년스포츠클럽교류대회가 오는 17일~20일까지 4일간 목포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스포츠클럽을 운영중인 전남도를 비롯해 서울, 부산, 인천, 강원, 전북 등 총 6개 시도에서 510여명의 선수단이 4개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대회종목은 농구(남·여중학생), 배드민턴, 수영의 3개 정식종목과 1개 시범종목(풋살, 남·여초등학생) 등 총 4개 종목. 이번대회는 꿈나무 선수들의 경기경험 확대와 선진국형 체육영재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우수선수 발굴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 체육계가 선진국형 스포츠 운영 체계로 변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대회로 체육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이고 출신 야구의 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광주이고 야구동문회(회장 이종범·이하 일구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모교 교정에서 정기총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이종범(KIA) 등 국내 프로야구 간판 선수들과 서재용(태평양), 최희섭(태평양) 등 광주이고 출신 빅리거를 비롯해 선동열 삼성 감독, 이강철 KIA 코치 등 한국야구를 대표하는 야구인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1980년대 초반 창립된 일구회는 90년대 들어 활동이 주춤했으나, 2001년부터 다시 조직을 재정비했다. 일구회는 그동안 적립된 기금으로 모교 야구부에 유니폼,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등 후배들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2007년 제18회시행 공인중개사 특강

전남고시학원

1월 2일

www.jnhighschool.com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1월 2일

www.jnhighschool.com

2007년 중국 명문대학 입학반 모집

중국대학 입학 설명회

www.1111111111111111.com

IBT토플 중123 영어영재반 대모집

www.megafirst.com

메가퍼스트학원